

✠ 교회 소식 ✠

<봉헌과 감사의 기도>

(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 크신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려 수치스런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심과 까닭없이 베푸시는 자비와 우리와 모든 인간에게 쏟아 부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중) 하나님, 우리로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 섬기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파송

<고난주일 성만찬>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는 아침”

/ 겔 37:12-13; 고전 15:54-5; 요 20:15-16 >

☐ 예배

빈자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우리 교회 예배당의 빈자리는 누군가 꼭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채울 한 사람을 찾아봅시다.

- 한식 합동추모예배 : 4월 5일(주) 오후 12시 15분, 추모의 벽 앞 (교회 주차장 사용 불가)
- 부활절 세례식·성찬식 : 4월 5일(주) 1·2부 예배 시
- 교회학교 애그페인팅 : 4월 5일(주) 12시, 야외데크 “부활절 계란꾸미기”

☐ 2026년 『성경 통독과 함께하는』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 일시 : 3월 23일(월)~4월 4일(토) 오전 6시 30분
- 주제 : “광야를 지나 십자가 앞으로”

일 자	말씀 (본문)	기도
30(월)	창된 왕이신 십자가 아래 엎드리다 (상상10-12장)	최종천 안수집사
31(화)	두려움을 이기는 십자가의 담대함 (상상13-14장)	김형주 안수집사
4/1(수)	내 상한 중심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상상15-16장)	강성윤 안수집사
2(목)	내 삶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십자가 (상상17-18장)	유란임 권사
3(금)	광야의 쫓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상상19-21장)	정정아 권사
4(토)	원수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사랑 (상상22-24장)	김미선 피택장로

☐ 전체제직회 : 한식합동추모예배로 4월 12일(주)에 합니다.

☐ 정기당회 : 29일(오늘) 2시 30분, 회의실

☐ 엘림아카데미 : 4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본당 "꽃나무 심기"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관계로 한 주 연기하여 진행합니다)

☐ 향존직 피택자교육 : 29일(오늘) 오후 1시, 회의실

☐ 모임

- “풍성한 삶의 첫걸음” : 오후 1시 30분, 소가재
- 중보기도 소모임 : 4월 4일(토) 오전 10시 30분, 소가재
- 구역장모임 : 4월 5일(주) 오후 1시, 회의실

☐ 2026년도 아나바다 선교바자회 : 4월 26일(주)

- 물품수집 : 4월 5일(주)~19일(주), 문의 : 유명옥 권사

☐ 소허당 전시 : TEA ARTIST “얼정”, 4월 3일(금)~12일(주)

☐ 식당봉사

- 29일(주) : 이소이 전해란 최영란 / 박지윤 이성희
- 4월 5일(주) : 김주현 최호정 / 윤성진 허재우

☐ 교우소식

- 장례 : 고 박종한 명예집사(302구역, 신선자 은퇴권사 부군) 25일(수) 별세 고 유명자 명예권사(203구역) 25일(수) 별세
- 감사 : 고 윤상구 장로댁 정원 다과회, 4월 5일(주) 점심식사 후

1 부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찢어진 휘장, 열린 품”

마가복음 15:37-39

우리는 겉으로는 번듯하게 살아가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을 안고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이 깊은 단절감과 외로움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서 생긴 '죄의 담장(휘장)'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이 두꺼운 성소의 휘장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철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직접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피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원수 됨의 담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서성이는 고아가 아닙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담대히 달려가, 하나님의 무릎에 안길 수 있는 '자녀(양자 됨)'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십자가가 열어 놓은 화해의 문을 통과하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소그룹 나눔 질문

1. [고아 영성] 내 삶 속에서 '고아'처럼 행동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거절당할까 봐 사람들과 미리 벽을 칠 때, 내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할 때 등)
2. [복음 적용]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임양되었다"는 사실이 나의 기도 생활이나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주간, '고아'가 아닌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종려/고난주일예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시118:26)

(목사)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회중)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겔옷과 나뭇가지를 깔며 예수님을 메시아요,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들 수 있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68장 다 같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합니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섬기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웃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소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상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떡이시며,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가지된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3) 사죄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141장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 59:1-2(1039) 한미진 권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2:13-16(311) 한미진 권사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묵상> “왕되신 우리 주께” 김진성도
오르간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15:37-39(83) 박정희 권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설교> 『찢어진 휘장, 열린 품』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박정희 권사

찬 송 144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